

교회 목표

신명한 예배
친구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선출을 위한 믿음의 결정

다음 주일(26일) 4부 예배 후 공동의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26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9대 장로 7분, 19대 안수집사 49분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 빛도 없이 이들도 없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땀 흘리시는 분들이 1차 추천되었습니다. 모든 공에 배 특히 급요집회 참석 여부와 심일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기본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여부와 수요 성경공부 이수 여부도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평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의 열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고전 2:2). 이처럼 이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영적인 검증은 거쳐 지난 3월 당회의 최종 결정으로 일꾼 후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교구는 물론 모든 장로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딤후 1:45).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외모에 치중하였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이번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한 일꾼 선출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지(갈 2:20)에 대한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음 주일(26일) 공동의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사가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세례 교인 이상의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찌라"(고전 4:1).

*정로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은 본지 6,7면을 참조하세요.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급요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2. 신랑과 신부(계 21:2,9)

요한계시록 21장 2,9절 말씀은 구속받은 교회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민족과 언어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나란히 예수님 앞에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어떤 관계로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 요한의 말씀을 바울의 증거와 비교하여 보자(고후 11:2). 바울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교회로 설 것을 부탁하고 있다(골 1:28).

바울 시대에는 신랑에게 '신랑의 친구'라는 중요한 중매자가 있었다. 이 신랑의 친구는 결혼 중매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다. 특히 신부의 정결하며, 흠이 없으며, 순수한 것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신부의 부모가 결혼을 주관하는 것과 같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주님께 그들의 순수함을 보증하여 야만 한 것이다(엡 5:25-27). 세례 요한도 신부를 취한 자가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다(요 3:28,29). 세례 요한 자신은 보배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하는 것이다(계 19:7). 예수님도 말씀에서 언급하신다(마 25:1, 11-13).

구약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결혼에 비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사 54:5). 즉,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신 것이다(호 2:19,20 ; 렘 3:14). 범죄한 신부의 모습이다(호 2:7). 정말로 그렇다. 옛 교회,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의 죄는 이 한 가지에 총괄되어 있다. 계속해서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지적하고 경고한다. 모든 죄악은 이 한 가지 즉, 영적 간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영적 간음이 무엇인가? 영적 간음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는 것이다. 그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되든지 간에 한 남편인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이 영적 간음인 것이다.

이제 신약 안에서 구약에서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그의 종들을 향하여 구약과 똑같이 요구를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 특히, 이 풍성한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셨고 신약에서도 보여주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영광의 소망이시다(골 1:26,27, 2:2). 신부를 가져신 그분, 신부의 모든 것, 깊은 속마음까지도 요구할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신랑이다. 이것이 곧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한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는 신랑을 위하여 준비된 신부와 같은 것이다. 이 신랑이 과연 누구인가? 이분이 구약에 나타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리라는 신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장을 던, 하나님을 향한 공격자이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철저히하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 그리고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 얼마나 간악한 생각을 하고 망령된 욕심을 쫓는 우리인가?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 모두 꿰뚫어 보신다(마 11:28). 진실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계 6:12, 14:12). 수송어지보다 낫다. 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마 8:6). "주님 나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주님 안에 나를 가져 주옵소서. 당신의 손에 있는 인장처럼 만드소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무덤처럼 잔혹합니다. 나로 하여금 철저히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소서. 다른 것에 눈이 팔리지 않게 하소서."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영광을 볼 것이다(마 17:24).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신적인 중보의 기도인 것이다. 천국에 이를 때에 주님 외에 다른 무엇이 있을까? 이 땅 위에 있을 때에도 주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시 73:25).

계시록에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이 맑고 순수하다. 그 성은 해나 달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의 아름다운 등이 되시기 때문이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거짓말하는 것들, 그 어느 것도 없다. 오직, 어린양의 성명밖에 거룩된 자들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은총의 자녀들만이 그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것이다(계 21:10, 11, 23, 27).

TWO SIGNIFICANT POINTS

(39) And Jesus said, "For judgment I came into this world, that those who do not see may see; and that those who see may become blind." (40) Those of the Pharisees who wer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and said to Him, "We are not blind too, are we?" (41) Jesus said to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since you say, 'We see', your sin remains." (John 9:39-41)

After healing a man who was born blind, Jesus said to him "For judgment I came into this world, so that those who do not see may see, and that those who see may become blind" (v. 39). Some Pharisees standing by Him overheard what He said, and asked Him, "We are not blind too, are we" (v. 40)? He told them, "If you were blind, you would have no sin; but since you say, 'We see', your sin remains" (v. 41). Jesus called attention to two significant points. First, spiritually blind people who know Him receive sight from Him, and He washes their sins away. Second, spiritually blind people who do not know Him, but think they have spiritual sight receive blindness from Him, and their sins remain. The Pharisees read Scripture, went to church, and prayed, but they did not know the Messiah. They crucified Him! Like the Pharisees, many people think they can see, but they really cannot. They read the Bible, go to church, and say they are good Christians, but they do not know Jesus. Do you really know Jesus? Are you thinking about His suffering during this Lent season?

If Jesus had not told the Pharisees they were sinners, they would not have been aware of it,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have sin, but now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Jn. 15:22). From Jesus' ministry comes judgment. He has spoken the truth for all to hear. Those who do not listen have serious problems. Matthew 13:13 says, "Therefore I speak to them in parables; because while seeing they do not see, and while hearing they do not hear, nor do they understand." Those who reject Him cannot understand His ways. Jesus said, "In their case the prophecy of Isaiah is being fulfilled, which says, 'You will keep on hearing, but will not understand; you will keep on seeing, but will not perceive; for the heart of this people has become dull, with their ears they scarcely hear, and they have closed their eyes, otherwise they would see with their eyes,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return'" (Mt. 13:14-15). If you want to see, hear, and understand the Lord, then get to know Jesus! Someone who opens their mouth while thinking their eyes and ears are open, when in fact they are closed, is a dangerous person.

The whole chapter of today's Bible verses is about the man born blind. When Jesus' disciples first saw him, they wondered whether it was this man or his parents who sinned and caused his blindness. Jesus explained, "It was neither that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it was so that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Jn. 9:3). Jesus had a deep and serious message to deliver through this man. His healing caused a lot of confusion because no one in the history of humankind had ever had his or her eyes opened after being born blind. When the Pharisees questioned him, the man was surprised that they did not know Him. He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but the Pharisees did not. Jesus said, "While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Jn. 9:5). The Pharisees saw the healed blind man, but they were blind to Jesus. The healed blind man saw His light.

"There was the true Light which, coming into the world, enlightens every man" (Jn. 1:9). This light is available to all people, but most people are blind because of their pride. When Jesus healed the man born blind, He showed everybody that He is the Light of the world. He challenged

the religious people, but their hardened hearts prevented them from seeing His light. Even though they heard His voice and saw Him heal a man born blind, their stiff necks kept them from believing in Him. They did not accept Jesus because of pride. Their pride told them that they were not sinners, which is why they sinned. Jesus healed so many sick people, He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but the high religious officials could not accept Him. They could accept the miracles, but not Jesus.

Accepting Jesus in this world brings hardships. The Pharisees, high priests, and scribes did not accept Jesus because they were afraid of their current situation. If they accepted Jesus, their current situation would get worse. They would lose their reputation amongst the Romans, and thus lose political power. These men were smart and knew the ways of society quite well. Truly, if they accepted Jesus they would lose everything, just like His disciples. The world would persecute them. Their spiritual blindness kept them in the dark. If you really accept Jesus Christ in this world, you will experience suffering. You have to take your cross and deny yourself, which means you give up the world's temporary pleasures of enjoyment.

Only those who have spiritual sight can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Very few people really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ir personal Savior because of their fear of society. The man who buried Jesus, Joseph of Arimathea, and a ruler of the Jews, Nicodemus, both came to Jesus at night because of their cowardice. Real Christians have to suffer in order to follow the Word of God, which is why the majority of today's Christians, even though they read the Bible, do not take Jesus Christ seriously. They want high positions, social recognition, and to say they believe in Jesus. Jesus does not work that way. Christians and pastors who live this kind of life are spiritually blind. Just like the Pharisees, who saw Jesus' miracles and heard His voice, they reject Jesus Christ. Their actions bring Jesus to the mountain of Calvary for crucifixion, all because of pride.

My dear friend, your pride gets hurt when you deny yourself and let go of the world to follow Jesus. After Paul met Jesus Christ, he took his cross and the suffering that came with it. He counted his worldly loss as nothing compared to the insurmountable joy in Christ Jesus. He understood Jesus' words, "I am the Light of the world; he who follows Me will not walk in the darkness, but will have the Light of life" (Jn. 8:12). When pride clouds your spiritual eyes, there is nothing but darkness. Please understand that "if your eye is ba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If then the light that is in you is darkness, how great is the darkness" (Mt. 6:23)! Jesus said, "This is the judgment, that 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the darkness rather than the Light, for their deeds were evil" (Jn. 3:19). I hope during this fourth Sunday of Lent that you will take the time to reflect on Jesus' suffering, and let His light shine in your heart, so that you will love the Light and reject the darkness. Please humble yourself and let Jesus heal your blindness. He will open your eyes and forgive your sins, so that you can be strong and courageous in the Lord your God. Amen. 🕊

다음 주일 설교

두 가지 중요한 핵심

⁽³⁹⁾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⁴⁰⁾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⁴¹⁾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지 있느니라
(요한복음 9:39-41)



김성환 목사

두 가지 핵심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39절). 예수님 곁에 있던 몇몇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40절). 주님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지 있느니라” (41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둘째,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안이 열려 있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주님은 그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죄도 여전히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회당에 가고, 늘 기도했지만 정작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피라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요 15:22).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심판이 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13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으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되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가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 13:14,15). 만약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눈 멀고 귀 먹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경계해야 할 위험 인물입니다.

고침 받은 소경

오늘 본문 9장 전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 9:3).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소경이 고침 받은 사건은 대환란을 일으켰습니다. 묵시하러 인류 역사상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해 궁금했을 때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 9:5).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고침 받은 것을 보면서 정작 자신들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고침 받은 소경은 주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 1:9). 이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셨을 때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냈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 도전하셨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져 그들은 주

님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소경으로 난 자를 고치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목이 굳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스스로에게 죄인이 아니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은 인정하였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현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명성은 추락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정치적인 권력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영리했고 사회에서 출세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스스로를 압축 속에 가두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장사지않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유대인의 관원 니코데모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는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든 묵시하러 영적인 소경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을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떠나 보낼 때 여러분의 자존심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길 데 없는 기쁨에 견줄만큼 세상적인 손해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자존심이 여러분의 영안을 가리던 어둠밖에 남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누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워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마 6:23).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정경이 어두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9). 사순절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할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빛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눈 먼 것을 고침 받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참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마 20:17-20)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정리하시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되어질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다.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 특별히 말씀하셨다(마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야로서 일을 완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완성된 왕국에서 서로 높은 지위를 탐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제자들은 단 마음을 품고 있었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마 10:32).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눅 22:44). 당시 세 명의 제자들이 가까운데 있어 예수님의 기도 부적이 있었지만 이들은 파관하여 잠만 잘 뿐이었다. 역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겟세마네에서 잠자는 제자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죄가 있어 내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벧전 2:20). 바울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일임을 전하였다(고후 5:21).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다.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넘기어 지신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마 20:18). 가뭇 유다는 온 삼십에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준다.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원수, 로마군병, 이방인이 아닌 당시 가장 증오한 종교지도자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더욱 가까워졌다(마 17:22; 마 16:21).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종교지도자들이었지만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자! 회개의 불길이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득 일어나야 한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살전 2:15,16).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종교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공모자가 된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종교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언하셨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감사가 넘치는 감사위원회

박종규(교로, 감사위원회)



우리 교회의 예산과 회계를 담당할 모든 청지기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것을 허비하지 않고 이를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의 예산과 그 집행을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 예산이 배정되고 또 이 예산을 소진하려고 긴요하지 않은 사업을 실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로 하나 되었기에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것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부서가 예산과 그 집행 과정에서 부서의 이기주의와 자로잡히지 아니하고 교회의 5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예산이 집행된 후에는 정산하여 남은 예산을 반납하고 주님의 것이 허비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모든 회계 담당자들이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쉽지 않은 감사위원회의 사역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엡 5:20).

지난해의 예산과 집행을 살펴보면 선교 부문에서는 2005년도 예산보다 16% 더 지출되었고, 청년부, 대학부, 고등부, 외선부에서 자라나는 많은 천국 일꾼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장학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도원과 동산의 관리, 건물들의 유지 보수가 많이 지출이 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제책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마 20:19).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모습이다(요일 2:2).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막 15:34). 예수님의 이 죽음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우상으로 하나님을 변질시켰다. 우리들의 욕심대로 각각 죄의 길을 갔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사 53:6).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히 2:10).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을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눅 8:10).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십자가에 감추어져 있다(마 4:11). 이 은총의 선물, 십자가를 절대로 놓지 말라! 십자가만을 붙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 우리의 힘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로 16:25-27).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셨다(요 10:17,18).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를 지셨다.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삼 일만에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딤후 2:8).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까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따라서 우리도 자존심, 의지, 명예를 모두 버리는 완전한 죽음이 없는 부활의 소망도 없다. “사망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5:55,57). 부활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승리이다.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드러나시고 십자가로 수욕하셨느니라”(골 2:15). 우리의 결심, 의지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한다. 승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 시 사신 구세주나 형상 섬기며 예수를 살아 계시게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 하시네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계시네”(찬 151장). 아멘.

앞으로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의 재정은 튼튼해졌습니니다. 이로써 복음을 위한 모든 일, 특히 양로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 업무 중에서 단기선교 부문 감사에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교에 관한 회계보고 서류들을 살펴보고 회계 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교우(선교위원들이 하나 되고 더욱 협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같은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경우에도 종전의 지출 선례에 얽매이지 않고 선교 사역비를 더욱 절약하고 있으며, 순수한 선교 외에 다른 용도로 선교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모든 재정원들이 협력하고 있었습니니다(렐 1:27).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찬양대, 권사회, 안수집사회와 같은 기관들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회비는 헌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재정은 주님의 것이므로 교회는 그 예산과 집행을 감독하여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이러한 자치 기관들의 예산과 집행도 교회의 원칙과 지도 방법에 부합되고 건실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주신 5대 목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갈 2:20).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할 청지기들에 의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 사용되고 잘 관리되도록 기도를 바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파드립니다.

I LOVE JESUS!

현재 사역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4일(화) ~ 3월 23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섭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11교구 6지역	박성명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직 원	최성기
3월 21일(화) ~ 3월 30일(목)	12교구 8지역	정영래

사역 첫 날 선교지를 정답하다가 기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무 비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날 중학교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분명히 전 날과 달랐습니다. 첫 첫실을 맺을 때 정말 기뻐서 마음이 평화되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선교의 기쁨인가? 또한 감사한 것은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어서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상 가족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전도지를 읽지도 못하여 의사 소통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서둘러 전도지를 가지고 현지 언어로 읽고 그림을 보는데, 그 아주머니는 자국 그림을 보며 무서운 표정을 짓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림을 보시더니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평화되면서 눈물이 뿜어졌습니다. 정말로 글로 다 쓸 수 없지만,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준비해 주신 영혼들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역은 절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나를 위해서 피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하은(중동1부)

금요집회에 대한 기대

금요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금요일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금요집회를 준비하는 제 마음은 분주합니다. 7시의 금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2시면 집을 나섭니다. 교회에 도착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교회 주변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고 본당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그렇게 기쁨을 수 없습니다. 위가 좋지 않아 사 먹는 밥이 만족스럽지 못 해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가려고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저의 마음은 조금씩 집니다. 집이 멀어 막차를 타야 된다는 염려로 집회 종료 5분 전, 10분 전에 살짝 빠져 나가는 저의 마음은 무겁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좋지 않은 관례로 역삼역까지 힘겹게 달려가 전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천안 가는 막차로 갈아 타고 의자에 앉았노라면 저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람의 간사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철이 생기기 전에는 고속버스 막차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심장이 좋지 않아 도 건디가 있는데, 주일에 봉사하는 것이 힘이 들어도 기쁘게 감당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순간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나의 힘,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김주분(권사, 16교구)

부인할 수 없는 큰 힘, 십자가의 은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종교란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종교적 믿음이란 사람의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기밀 곳이 있는 종교인들을 부러워하는 했지만 나 같이 소위 나 잘난 부류(?) 들은 세상에 믿을 것이란 나 자신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유난히 강했던 나는 남자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목사님 말씀도, 찬양도 결국은 좋은 얘기에 좋은 음악이니까 들어서 나날 전 갔다고 생각하며 남자 친구를 따라나오기 시작한 교회였다. 그런데 종교를 갖게 되더라도 기독교는 죽어도 싫다며 맘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내게 주님께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경험들을 역사해 주심으로 꽤 막혔던 내 맘의 문을 비집고 들어오셨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힘이었는데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모든 적하고 무시하던 그 때조차도 한결같이 날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러기에 뒤늦게 맘을 연 내게 무한하고도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에 처음엔 내심 겁도 나고 두렵기도 했지만 주님과 교제하던 할수록 그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으니 이전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박신정(새가족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84	박찬환	2 장년3부	송남석(4)	912	신아람	19 외선부	주비(도배19)	940	유연필	7 장년2부	고옥영(17)
885	이연	19 장년1부	최정선(18)	913	이성애	15 장년2부	이경자(17)	941	이미희	11 장년1부	이은진(11)
886	유연진	14 장년2부	김영림(14)	914	이정원	19 장년1부	송두희(17)	942	신재하	1 장년1부	안보진(1)
887	박재정	19 장년1부		915	정선옥	7 장년1부	양영애(15)	943	김태희	3 장년1부	박필명(18)
888	유영실	12 장년2부	홍진실(1)	916	임현수	7 고등부	고복희(11)	944	조은희	18 장년2부	홍현희(14)
889	오준호	7 장년1부	임정현(1)	917	가용순	16 장년2부	백은실(1)	945	김민재	3 장년2부	정예하(8)
890	도기	19 외선부	김준현(12)	918	남영자	8 장년3부	오영진(1)	946	유영환	6 장년2부	이재철(3)
891	오영숙	13 장년2부	임병준(7)	919	주희용	11 장년3부	김영진(3)	947	강성자	4 대학부	방홍철(3)
892	이아희	18 장년2부	홍진희(18)	920	유경선	4 장년2부	박지현(1)	948	무미나	9 외선부	최희옥(15)
893	이성진	19 장년1부	최선지(1)	921	한민기	4 장년2부	유종숙(8)	949	이태훈	19 외선부	홍영희(18)
894	이민호	19 장년1부	최은희(1)	922	한효정	4 장년3부	유정재(8)	950	피이문	19 외선부	김금옥(18)
895	지영미	19 장년1부	염옥선(18)	923	이현준	19 장년1부	임성영(17)	951	안두리차크	19 외선부	이윤진(18)
896	이원희	7 소망부	금옥연(7)	924	정재숙	13 소망부	임현진(1)	952	연크리비트	19 외선부	
897	한성모	7 장년1부	김진서(15)	925	임성훈	15 소망부	양영숙(1)	953	이르함함	19 외선부	
898	지성자	16 장년2부	김정환(15)	926	김준호	9 장년2부	최현진(3)	954	솔루한원	19 외선부	최영초(7)
899	김진실	10 장년1부	박정순(8)	927	한태선	9 예배12부	김순옥(11)	955	홍길	19 외선부	
900	박옥자	10 장년1부	박영순(8)	928	황승기	19 중동2부	문경진(7)	956	한민진기	19 외선부	
901	이문선	16 소망부	박순옥(1)	929	이상은	19 중동2부	문경진(7)	957	이규상	1 소망부	정승윤(18)
902	김정현	1 장년1부	류홍희(1)	930	박수빈	19 장년2부	문경진(7)	958	정세진	19 장년1부	김규석(8)
903	김지희	8 장년1부	김동주(7)	931	홍남진	19 중동2부	유영자(3)	959	최재원	19 장년1부	김경자(18)
904	이영실	16 소망부	오영하(8)	932	조훈남	6 장년1부	이진영(1)	960	김모소	15 소망부	전옥순(15)
905	이성남	17 소망부	조종관(17)	933	조현희	5 장년2부	김재희(3)	961	정연구	10 예배12부	오동현(14)
906	유정근	6 장년2부	유병순(8)	934	전기향	18 장년2부	이성희(14)	963	양희하	19 장년2부	신조자(11)
907	김재홍	14 장년2부	노승환(14)	935	한병근	10 소망부	오광진(1)	964	이규철	9 장년1부	윤정재(4)
908	이재원	19 대학부	김진경(1)	936	이재광	14 장년2부	김연자(1)	965	이 호	9 장년1부	신현영(8)
909	조후아나나	19 외선부	나영실(12)	937	김윤미	1 장년1부	김약력(1)	966	권영희	9 예배12부	박건기(1)
910	김리미르	19 외선부	박지미(1)	938	최수영	19 중동2부	이영진(7)	967	임호식	10 장년1부	정현실(15)
911	나나	19 외선부	주비(도배19)	939	전관영	1 장년2부					

제39대 장로 후보자 명단



황학규	
나이	66
교구	4
봉사 부서	지역장 안수집사회부회장
번호: 1	



정창수	
나이	60
교구	3
봉사 부서	지역장 창년1부교사
번호: 2	



엄복섭	
나이	56
교구	6
봉사 부서	지역장 중동1부부장
번호: 3	



이상석	
나이	50
교구	4
봉사 부서	지역장 대학부부장
번호: 4	



오순도	
나이	49
교구	4
봉사 부서	제직회부서기 유아부부장
번호: 5	



양기수	
나이	49
교구	5
봉사 부서	지역장 창년2부부장
번호: 6	



김태석	
나이	49
교구	15
봉사 부서	지역장 창년1부부장
번호: 7	

(나이순)

제19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정철석	
나이	66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한금부원
번호: 1	



정운출	
나이	64
교구	1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아원찬양대
번호: 2	



이성실	
나이	62
교구	9
봉사 부서	차량안내 바울전도회
번호: 3	



박찬욱	
나이	60
교구	12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4	



김승규	
나이	60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바울전도회
번호: 5	



백승운	
나이	59
교구	4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한금부원
번호: 6	



한용택	
나이	59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
번호: 7	



유동호	
나이	59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가브리엘찬양대
번호: 8	



정준	
나이	58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재정위원회계부
번호: 9	



이성남	
나이	58
교구	1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한금부원
번호: 10	



이선홍	
나이	58
교구	12
봉사 부서	교구간사 바울전도회
번호: 11	



이일섭	
나이	58
교구	7
봉사 부서	교구상조회장 바울전도회
번호: 12	



김종민	
나이	57
교구	13
봉사 부서	메트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번호: 13	



서진원	
나이	57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바울전도회계
번호: 14	



임희준	
나이	56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한금부원
번호: 15	



김동안	
나이	56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
번호: 16	



강흥선	
나이	56
교구	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재정위원회계부
번호: 17	



이인용	
나이	56
교구	4
봉사 부서	교구간사 바울전도회계
번호: 18	



박남주	
나이	55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외선부교사
번호: 19	



박규연	
나이	55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교구간사
번호: 20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정재복**

나이 55
교구 9
남성구역장
베드로전도회
봉사 부서

번호: 21

**박석산**

나이 54
교구 6
남성구역장
의료선교총무
봉사 부서

번호: 22

**정찬용**

나이 54
교구 2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 23

**이준식**

나이 53
교구 3
남성구역장
새기독교육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24

**김기홍**

나이 53
교구 10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 25

**박재현**

나이 53
교구 18
베드로전도회장
안내부원
봉사 부서

번호: 26

**장지관**

나이 53
교구 8
남성구역장
유년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27

**장경욱**

나이 53
교구 6
남성구역장
함평부아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28

**박명근**

나이 52
교구 13
남성구역장
가브리엘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29

**임광진**

나이 51
교구 18
남성구역장
새가족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30

**유병수**

나이 51
교구 2
남성구역장
인마누엘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31

**배종락**

나이 51
교구 14
남성구역장
중동2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32

**고재훈**

나이 50
교구 6
남성구역장
새가족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33

**강호원**

나이 50
교구 4
전도회연합회장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 34

**정승진**

나이 50
교구 16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 35

**황재현**

나이 50
교구 3
베드로전도회장
남성구역장
봉사 부서

번호: 36

**임우도**

나이 50
교구 16
남성구역장
아벨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37

**임병준**

나이 49
교구 7
중동1부교사
안내부원
봉사 부서

번호: 38

**양승찬**

나이 49
교구 11
남성구역장
함평부아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39

**이경환**

나이 48
교구 7
함평부아원양대
베드로전도회
봉사 부서

번호: 40

**한홍연**

나이 47
교구 17
남성구역장
중동2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41

**최계열**

나이 46
교구 1
남성구역장
아벨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42

**이진수**

나이 46
교구 1
교회직원
베드로전도회
봉사 부서

번호: 43

**이상배**

나이 46
교구 12
남성구역장
베드로전도회
봉사 부서

번호: 44

**김충식**

나이 46
교구 10
남성구역장
요한전도회
봉사 부서

번호: 45

**김홍열**

나이 45
교구 15
남성구역장
함평부아원양대
봉사 부서

번호: 46

**최영인**

나이 44
교구 9
남성구역장
유치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47

**정진곤**

나이 43
교구 5
남성구역장
중동2부교사
봉사 부서

번호: 48

**김성현**

나이 42
교구 15
남성구역장
차광안대
봉사 부서

번호: 49

*다음 주일(26일) 4부 예배 후(오후 2시) 공동의회 시 일꾼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세례 교인 이상인 분은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나이순)

모임

일시: 22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홀

별 세

1. 정승임 씨 (황교석 성도의 모친, 김복분 집사의 시모, 15교구 신발부구역) / 8월 별세, 10일 장례
2. 박미금 타곡권사 (김갑진 성도의 모친, 신혜진 집사의 시모, 183교구 송화1구역) / 9월 별세, 11일 장례
3. 김애란 집사 (1교구 태어난4구역) / 12월 별세, 14일 장례
4. 문순태 타교성도 (이영숙 권사의 모친, 이형남 집사의 시모, 9교구 월계1구역) / 14월 별세, 16일 장례
5. 서도원 타교성도 (서동희 집사의 부친, 최준영 집사의 장인, 12교구 종산구역) / 15월 별세, 17일 장례

결혼

1. 편은장 군(편상덕 성도, 최명회 성도의 아들, 타교회)과 이

◆ 안수집사 수련회

일시: 3월 24일(금) 금요집회 후~3월 25일(토) 13:30
장소: 충현기도원

◆ 2006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자: 3월 26일~6월 11일(12주)
시간: 매 주일 오후 3:10~4:20 장소: 에비다보실(제2교육관 1층)

교회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경비직 (약간 영) 2. 자격 세례 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 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
4. 서류 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65-1 사무국 ☎ 552-8200(#403)

4. 김충현 군(인근관 생도, 김충열 생도의 아들, 13곡구) / 25일(화) 1830 그랜드아미널호텔로
텔 그랜드볼룸
5. 이범모 군(안장호 정로, 이윤자 생도의 아들, 8곡구) / 21일(화) 1330 갈림리홀
6. 유은진 군(최정심 권사의 아들, 13곡구와 갈마치 마을 무 씨의 딸) / 25일(토) 1200 연세대병원 지하1층(광화문역 인근 출구)
7. 김충현 군(인근관 생도, 김충열 생도의 아들, 13곡구)와 임미숙 양(영진교회, 이연숙 씨의 딸) / 25일(토) 1300 서울부패방지청 9층(구의역 4번 출구)
8. 천상진 군(강재선 생도의 아들, 8곡구와 김미란 양(강진선 생도의 딸, 10곡구) / 25일(토) 1400 장암미녀대학홀 5층 로즈마리홀

4. 김동현 군(김인권 성도, 김정
영 성도의 아들, 13교구)과 염
미숙 양(염전하 씨, 이연하 씨
의 딸) / 25일(토) 13:00 서울
부패방지홀 9층(구의역 4번
출구)
5. 천상현 군(황해신 집사의 아
들, 8교구)과 신미란 양(강영
선 성도의 딸, 10교구) / 25일
(토) 14:00 강남터미널배달홀
5층 로즈마리홀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담당

	20(월)	21(화)	22(수)	23(목)	24(금)	25(토)	26(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임무천	이경준/윤병식	이경준/백봉선	이경준/강석화	이경준/이기옥	김영훈/김정연	장 훈/강덕필

예배담당 안내 (3/22-3/26)

날짜	예배	주요 찬양	사회 기도	설교
3/22	수요 I	인애하심 구제우어 (호산나 찬양대)	정현민	안금파
3/22	수요 II	* 참혹한 십자가에 (실로암 찬양대)	안지현	이영숙
3/24	금요일	트림펍 조성을 / 소프라노 감동곡 / 전도위원회 중창단	이재영	김성관 목사
3/26	주일 I	(예배 전찬양)	최충환	창의만
3/26	주일 II	마음 속엔 금강산이 사해의 / 소프라노 감동곡 / 전도위원회 중창단	고광현	이영숙
3/26	주일 III	내 예수께 조종하기와 / 바이올린 막바니올로프와 호스트다	이국진	유성민
3/26	주일 IV	참 아름다운 강변에 (비니올로프와 호스트다)	최성규	김원기
3/26	주일 V	만대창조하신 하나님 / 소프라노 찬양대 전찬양 (호산나 찬양대)	위현강	강정철
3/26	주일찬양	브리니여 아름다운 땅 / 합창단 찬양대	김준희	이부성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제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 드리는 제배)	본 당
친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0:30	금요철야 후 본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9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히브리어, 중국어 1부와 드리는 주일 1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팔로인,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초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동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성 광 부	오후 12:15	갈 땀 리움
사 랑 부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한글) 오전 1:00(영어)	제2교육관 1층
타 악 부	(화) 오전 8:30~9:40 (토) 오후 6:30~9: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 다 이 홈
충원여아집	주간교구	교육관 107호
구전생애인교구	주간교구	충원교회
조선대신교구본부	오후 11:00	안 매 호

2006년 단기선교팀 2차 언어훈련

시간: 매주일 오후 3:00-3:50

기간: 2006.3.5 - 4.23 (총 8강)

연어국가	강 사	강의실
몽골	나 라	교육관 401
대 농 굴	김예스터	교육관 401
인도네시아	이 북 희	본 512
러시아(국통)	주 미 라	교육관 408
카자흐스탄	김연미	교육관 404
우크라이나	써루게이	교육관 409
방글라데시	민 두	교육관 303
베트 남	비	교육관 510
라 오 마	권 다 희	교육관 505
인 도 스	나 다	교육관 407
캄 보 디 아	김 진 경	교육관 307
통발타이	이 향 선	교육관 501
통 로 르	유 용 호	교육관 419
우즈베키스탄	보 장	교육관 308
파푸아뉴기니(중동·중남)	김 정 은	교육관 410
스 리랑 카	다 구 시	교육관 509

*언어반응이 상황

상기 선교언어 훈련 국가 중 3월 12일(월)부터 동알레이
시아 언어반(501호)이 동티모르(띠투어) 언어반과 동알레이
시아 언어반으로 나뉘어 집니다.

• 수강내용

- 선교언어 필수임기 25개 문항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기
- 현지어 천양 2-3급 필히 암송
- 1:1 전도 실습을 현지어로 반복 훈련
-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 영접기도문 숙지 암기
- 지리, 문화 풍습, 기후, 국가 통치 체제 설명(10-15분)

3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사무님의 사역을 성경계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불로마를 사수하여 주시고, 영혼 간의 간헐한 시간을
-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혼을 배풀어 주시.
- ③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신다.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장전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기쁨으로 은혜를 주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분배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신다.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경계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2006년 3월 20일(월) ~ 3월 24일(금)

날 짜	주력 교구
3월 20일(월)	4, 10, 13교구
3월 21일(화)	5, 8, 15교구
3월 22일(수)	2, 11, 16교구
3월 23일(목)	9, 12, 17교구
3월 24일(금)	3, 6, 7교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사순절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으니 사순절기 3월 1일~4월 15일 동안 기금적 모든 공예에 빠지지 마십시오.”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의형제	김호준 고려대학교	노영현 연세대학교	이병학 유지대학교
남수문	김종구 충청대학교	최두경 고려대학교	이정호
김광남	이종석 고려대학교	임두현 고려대학교	이금재
전홍철	정철우 단국대학교	김다윤 고려대학교	한승주 한양대학교
김기원	김원준 계천대학교	이형수 고려대학교	안도현 한국해양대학교
김기형	장대중 성균관대학교	이재인 고려대학교	박덕양 경인대학교
김영태	박용규 강서대학교	권민욱 계천대학교	조종환 계천대학교
김동만	이실호 고려대학교	최희준 고려대학교	노영한 한양대학교
정길진	신상식 나주시립대학교	고재경 고려대학교	장철형 해운대학교
이달옥	장철현 고려대학교	김승곤 고려대학교	함필주 계천대학교
전선진	안석연 고려대학교	김덕근 고려대학교	김장국 사북초등학교
임창식	김은진 고려대학교	전하태 고려대학교	김진숙 고려대학교
김혁문	장승훈 고려대학교	전문배 고려대학교	석영식 고려대학교
송두서	최하은 매곡초등학교	신선결 고려대학교	유상태 고려대학교
김규석	신광열 고려대학교		

■ 부목사

조종대 12주	정원민 4주	박기진 4주	류병희 12주	김영민 4주
여국근 12주	안간직 4주	나광영 11주	정진호 11주	김윤환 11주
고광환 13주	원기남 세가지목목 4주	최정훈 14주	차 훈 4주	이현희 4주
이재수 6주	최종철 15주	안치원 10주	정승호 10주	
양재용 10주	이성진 15주	조규호 10주	최정규 10주	
이경준 15주	김윤서 6주	김운익 12주	이재우 12주	
정성영 4주	이경호 8주	김태석 8주	김지훈 8주	황진기 초등부
■ 여전도사				
신동주 12주	윤인식 10주	허영준 11주	김민석 11주	홍순재 12주
이옥주 6주	김말자 6주	안태순 6주	김경연 6주	강덕희 6주
최문실 12주	전은희 12주	김영순 12주	김경자 12주	김정자 12주
이복순 4주	류진희 4주	한성임 4주	임태주 4주	강영희 4주
이복순 세가지목목 3주	이복순 강호초 3주			
■ 찬양감독 간담구				
전집지휘자	서문선	김원섭		
전집도창자	김소연			
전집도사	나수현	전집임주자	장인희	